

미국 콘텐츠 산업동향

CONTENTS INDUSTRY TREND OF USA

한국콘텐츠진흥원
미국사무소



주간 심층이슈

『2012년 할리우드 박스오피스 중간결산』

◎ 작성취지

- 2012년 상반기 영화 흥행성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여름시즌과 함께 시작될 하반기 개봉작들을 통해 하반기 영화시장을 분석하고자 함

◎ 작성순서

- 들어가기
- 상반기 영화 흥행성적 분석
- 삼사분기 영화 트렌드 전망
- 정리 및 시사점

1. 들어가기

■ 2012년 상반기 영화 트렌드 전반

- <어메이징 스파이더맨>이 지난 7월 3일, 미국 및 해외 주요시장에서 동시개봉하면서 2012년 할리우드 박스오피스는 본격적으로 여름시즌과 하반기의 문을 동시에 열었음
- <어메이징 스파이더맨>은 독립기념일 휴일 하루 전인 7월 3일 개봉해 3일과 4일 이틀 동안 5,920만 달러를 벌어들임
- <할리우드 리포터>는 <박스오피스 모조>의 통계를 근거로 첫 주말이 지나면 <어메이징 스파이더맨>의 성적은 1억 4,000만 달러에

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고, 개봉 전에 배급 전문가들은 이 영화의 첫주 개봉 성적이 1억 5,0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음



- <헝거게임: 판엠의 불꽃>, <어벤져스>로 인해 예상을 웃돌며 호전한 2012년 상반기 할리우드 박스오피스는, 2010년과 2011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4%와 2%씩 성장한 수치를 나타내 시장이 호조로 돌아섰다는 낙관을 낳게 했음
- 전반적으로 2011년과 비교하면 블록버스터의 박스오피스 점유율이 예년에 비해 적고 전체 성적 등이 나아지고 있음
- 하지만, 하반기에 대한 예측은 사상 최고 수입을 거두어 들이는 여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총출동한 슈퍼히어로물로도 구제할 수 없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

2. 상반기 영화 흥행성적 분석

■ 2012년 일사분기 (1월~3월)

○ 일사분기 박스오피스 특징

-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북미 박스오피스 수입은 26억만 달러로

집계되고 있고, 2011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, 5,000만 달러 높은 수치이며, 23% 성장했음

- 순위 1, 2위를 차지한 <헝거게임: 판엠의 불꽃>과 가장 높은 수입을 기록한 닥터 수스 원작 애니메이션, <로렉스>의 선전이 일사분기 흥행의 요인임
- 이 두 영화는 개봉성적만 각각 1억 5,000만 달러, 7,0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음

순위	영화제목	수익(\$)/극장수
1	헝거게임	403,995,077/4,137
2	로렉스	213,324,380/3,769
3	21 점프 스트리트	138,447,667/3,148
4	세이프 하우스	126,181,630/3,121
5	서약	125,014,030/3,038
6	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: 신비의 섬	103,860,290/3,500
7	타이탄의 분노	83,670,083/3,545
8	존 카터	73,078,100/3,749
9	액트 오브 밸러	70,012,847/3,053
10	콘트라밴드	66,528,000/2,870

<2012년 일사분기(1월~3월) 박스오피스 순위 10>

- 2010년, 2011년과 비교하면 2012년은 전반적으로 좋은 출발을 보였음
- 특히, 주목할 점은 2012년은 예년의 일사분기 성적이 전년도 12월 개봉작으로부터 넘어온 수익이 가지는 비율이 크고, 또 블록버스터 한 편의 박스오피스 점유율(혹은 의존도)이 23%로 높았음
- 반면, 2012년의 1, 2위인 <헝거게임: 판엠의 불꽃>과 <로렉스>의 수입은 일사분기 수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7%를 넘지 않았다는 점임
- 또한, 일사분기 박스오피스 10위를 살펴보면,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

- 데모그래피의 관객을 극장에 유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
- 액션 블록버스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, 로맨틱코미디, 드라마, SF 등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른 장르의 편성을 보인 것이 다양한 관객을 끌어 모으며 또 한 영화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됨
 - 특히,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여성 관객들을 겨냥한 <헝거게임: 판엠의 불꽃>은 원작 소설이 여성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며, 제2의 <트와일라잇>이 될 것으로 전망
 - <서약>, <로렉스> 등 전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PG-13, PG 등급의 영화들이 선전한 사실은 주목할 만함
 - 10위 안에서 <헝거게임: 판엠의 불꽃>, <로렉스>, <세이프 하우스>, <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: 신비의 섬>, <존 카터> 등은 할리우드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들임
 - 특히, <존 카터>, <세이프 하우스> 두 편은 미국 내 수입보다는 해외수입이 더 큰 영화로, 제작비 회수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했음
 - 이 밖에 적은 제작비로 수익을 올린 영화들로는 <21 점프 스트리트>, <엑트 오브 밸러> 등이며, 11위에 랭크되어 순위에는 나오지 않은 파운드푸티지장르 <크로니클> 등이 있음

■ 2012년 이사분기 (4월~6월)

○ 이사분기 박스오피스 특징

- 이사분기의 시작은 일사분기에 비해 저조했으며, 2011년 동기간과 비교해도 일사분기의 낙관론이 때 이른 축포였다고 생각되리만큼 눈에 띄는 흥행작이 없었음
- 2011년 이사분기에는 <패스트 파이브>, <리오>, <Hop> 등이 모두 극장수입 1억 달러를 달성한 바 있으나, 2012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관객을 겨냥한 니치마켓 코미디 <씹크 라이크 어 맨>이

1위에 올랐으며,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한 로맨스드라마 <럭키 원>이 2위를 차지했음

- 두 영화의 총 극장수입은 모두 1억 달러를 넘지 못했으며, 3위는 타이타닉 호 침몰 100주년을 추모, 기념하는 의미에서 3D로 리마스터링해서 재개봉한 <타이타닉 3D>임을 감안한다면, 2012년 4월 박스오피스는 3월까지의 호황을 이어가는 데 실패했음을 알 수 있음
- <아메리칸 파이> 시리즈의 후속작, <아메리칸 리유니언>과 <내 여자친구의 결혼식> 제작팀이 다시 모여 제작한 <5년째 약혼중>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올린 것도 4월 침체의 원인으로 분석됨

순위	영화제목	수익(\$)/극장수
1	어벤져스	608,483,000/4,349
2	마다가스카 3: 이번엔 서커스다!	184,140,000/4,263
3	맨 인 블랙 3	171,063,436/4,248
4	브레이브	149,358,000/4,164
5	스누우 화이트 앤 더 헌치맨	147,545,140/3,777
6	프로메테우스	120,146,000/3,442
7	씽크 라이크 어 맨	91,345,088/2,052
8	테드	79,614,625/3,254
9	다크 쉐도우	76,343,333/3,755
10	배틀쉽	64,009,235/3,702

<2012년 이사분기(4월~6월) 박스오피스 순위 10>

- 하지만, 이 침체는 5월 4일, <어벤져스>가 개봉하면서 반전을 맞음
- <어벤져스>의 첫 주 개봉수입은 2억 743만 달러로, 미국 극장수입은 전주 대비 157% 상승함
- 개봉 3주 연속 <어벤져스>는 1위를 지켰고, 극장수입만 총 4억 5,766달러를 벌어들였음

- <어벤져스>는 미국 내 수입 6억 달러를 넘긴 3편의 영화 중 하나이며, 이 세편 중 두 편은 모든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었으며, <타이타닉>과 <아바타>가 그 두 편이임
- <어벤져스>는 3D와 아이맥스에서 상영이 되었는데, 티켓 가격이 각각 1.5배에서 2배까지 일반입장권과 차이가 나서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 발생하였음
- <마다가스카 3:이번엔 서커스다>, <아이스에이지 4>, <브레이브> 등의 애니메이션 역시 이사분기의 <로렉스>의 뒤를 이어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
- <어벤져스>는 여름용 블록버스터의 개봉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는 최근 트렌드를 방증하며, 또한 여름이 아니어도 블록버스터가 흥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음
- 하지만, <어벤져스>가 이룬 공전의 흥행 뒤에는 <배틀쉽>, <다크 새도우> 등 볼거리 위주의 액션 블록버스터와 스타감독(팀 버튼), 스타배우(조니 뎡)의 출연작이 흥행에 실패한 기록이 있음
- 일각에서는 <어벤져스>의 독주에 가려진 흥행실패를 살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
- 특히, 이사분기 동안 165편의 영화(대부분 제한개봉작)가 개봉했으나, 그 중 10위 안에 들어간 R등급 영화는 리들리 스콧의 <프로메테우스> 뿐이라는 점은, PG-13등급에 집착하는 스튜디오의 결정이 박스오피스 성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함

■ 2012년 상반기 박스오피스 트렌드 분석

○ 프랜차이즈의 강세

- 프랜차이즈, 시퀄, 프리퀄, 시리즈는 여전한 강세임
- 2011년 10편의 영화 중 프랜차이즈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영화는 9편이었음
- 2012년 상반기도 마찬가지이며, <박스오피스 모조>의 통계에 근거하면 10편 중 6편이 프랜차이즈임

- <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: 신비의 섬>, <맨인블랙3>, <마다가스카 3: 이번엔 서커스다!>, <타이탄의 분노>가 시퀀이며, <프로메테우스>는 <에일리언>시리즈의 프리퀄, <헝거게임: 판엠의 불꽃>은 앞으로 제작될 3편 시리즈의 첫 편, <어벤져스>는 프랜차이즈 총 집합물이었음
- 이렇게 할리우드에서 프랜차이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데에는 기존의 흥행이 주된 요인이기도하지만, 새롭게 배우를 캐스팅하고 판을 짜는 노력이 덜해 비용적인 면에서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

○ 블록버스터 흥행공식의 변화

- <배틀쉽>은 할리우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액션블록버스터이자 재난영화인데, 이 영화의 제작비는 2억 1,000만 달러 이상으로 제작비 규모로 먼저 유명세를 얻음
- 사실 제작비와 영화 스케일은 상응하는 것이 보통이라,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영화의 경우, 마케팅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 관객들은 상상하는 것 이상을 영화가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함
- 하지만, <배틀쉽>의 첫 주 성적은 2,550만 달러였으며, NBC유니버설의 한 소스는 이 영화의 손해액은 1억 5,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음
- 물론 제작비와 마케팅 규모에서 본다면 <어벤져스>와 <헝거게임: 판엠의 불꽃>과 다를 것이 없지만, 영화가 내용이 없고 볼거리에만 충실할 때 벌어질 수 있는 흥행 대참패의 표본이 <배틀쉽>임
- 제작비를 대거 투입한 영화는 흥행한다는 공식은 이제 (적어도 미국 내에서는) 보증되지 않음
- 이에 더해 영화제작비가 너무 비싸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
- <배틀쉽>에 더해 <맨인블랙3>도 2억 2,500만 달러의 제작비 대비 미국 내 수입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
- <맨인블랙 3>의 경우 국내수입보다 해외수입이 커 흥행참패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, <프로메테우스> 역시 제작비와 흥행 규모가

어긋나는 예로는 마찬가지로

-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DVD 판매가 내리막길인 최근, 극장수입에 영화의 수입을 모두 의존할 수 없음

○ 스타시스템의 약화

- <다크 새도우>, <록 오브 에이지스>, <댓츠 마이 보이> 등은 조니 뎁, 톰 크루즈, 애덤 샌들러 등 1990년대 이름만으로도 영화의 흥행을 보증했던 스타급 배우들이 출연하고도 상반기에 고전을 면치 못한 영화들임
- 해외시장에서는 선전했지만 토미 리 존스와 윌 스미스가 출연한 <맨인블랙 3>도 미국 내 시장에서는 부진했음

○ 인디영화들의 약진

- <인디와이어>는 2012년 상반기 인디영화들의 약진이 지난 몇 년간 추세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음
- <인디와이어>에 따르면, 2009년에는 그 해에 개봉한 인디영화(Specialty Films) 중 500만 달러 이상의 극장수입을 기록한 영화의 편수가 2편이었으나, 2010년에는 6편이 되었고, 2011년에도 6편, 2012년에도 6편에 달했음

2009 - 2 specialty films grossed \$5 million+
 2010 - 6 specialty films grossed \$5 million+
 2011 - 6 specialty films grossed \$5 million+
 2012 - 6 specialty films grossed \$5 million+

2009 - 8 specialty films grossed \$2 million+
 2010 - 15 specialty films grossed \$2 million+
 2011 - 15 specialty films grossed \$2 million+
 2012 - 15 specialty films grossed \$2 million+

2009 - 17 specialty films grossed \$1 million+
 2010 - 22 specialty films grossed \$1 million+
 2011 - 28 specialty films grossed \$1 million+
 2012 - 27 specialty films grossed \$1 million+

- 수입의 규모를 200만 달러, 100만 달러로 낮추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영화의 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음
- 2012년의 인디영화 중, 손에 꼽히는 영화는 <베스트 엑조틱 메리골드 호텔>과 웨스 앤더슨의 <문라이즈 킹덤>임
- 두 편의 영화는 제한개봉작으로 적은 수의 스크린에서만 상영되었음에도 스크린 수 대비 높은 흥행수익을 올렸음
- 2012년 LA필름페스티벌의 개막작이었던 우디 앨런 감독의 <투 로마 워드 러브> 역시 일찌감치 매진되는 것으로 인기를 증명했음
- 아트하우스 영화, 인디영화의 관객들은 꾸준하게 영화관을 찾는 가장 안정적인 프로필의 관객층으로 알려져 있음
- 이 같은 인디영화의 약진에는 지난 해 칸 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했던 우디 앨런 감독의 <미드나잇 인 파리>(한국은 2012년 7월 개봉)의 흥행과 <아티스트> 등 최근 아트하우스 영화들의 흥행과 연관이 있음

○ 외국어영화의 틈새시장 개척

- 외국어영화의 힘도 2012년 상반기에 주목할 만한 현상임
- 5편의 영화가 2012년에 100만 달러 이상의 극장수입을 올리는데 성공했으며, 그 중 3편은 프랑스영화로 <언터처블: 1%의 우정>, <자전거를 탄 소년>, <라자르 선생님>이고, 이스라엘 영화 <풋토느>와 인도네시아 영화 <더 레이더: 리템션>으로 총 5편임
- 이는 2012년 상반기 흥행한 인디영화(Specialty films) 중 20%가 비영어권 영화임을 증명함
- 아직까지는 프랑스영화의 비중이 크지만, 이란 영화 <씨민과 나데르의 별거>(A Separation, 2011년 개봉)가 700만 달러의 극장수입을 올린 것을 미루어볼 때, 미국 영화시장의 인디영화(Specialty Films) 세그먼트가 해외영화의 수입에 가능성을 열어줄 것을 말함

○ 애니메이션의 안전성

- 박스오피스에서 실사영화보다 애니메이션이 선전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기별, 반기별, 연별 결산을 보면 박스오피스 상위권에는 항상 애니메이션이 있음
- 일사분기의 <로렉스>, 픽사의 <브레이브>, 칸 영화제 개막작인 <마다가스카 3: 이번엔 서커스다!> 등은 제작비 대비 흥행수익으로는 실사영화에 뒤지지 않는 수익을 냈음

3. 삼사분기 영화 트렌트 전망

■ 2012년 삼사분기(7월~9월)

○ 2012년 삼사분기(7월~9월) 주요 개봉작

- 2012년 여름에 대한 박스오피스 분석가들의 기대는 큼
- <어메이징 스파이더맨>의 선전을 따라잡을 7월 20일 크리스토퍼

놀란 감독의 <배트맨> 3부작의 마지막 편인 <다크나이트 라이즈>가 대기하고 있으며, 또 그 뒤로 8월 3일 <토탈리콜>, 8월 10일 <본 레거시> 등이 줄줄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임

- 7월 13일 개봉하는 <아이스 에이지 4: 콘티넨탈 드리프트>도 여름 영화 중에서 가족관객이 관람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는 블록버스터에 속함
- 이 밖에 7월 27일에는 <스텝업 4>, 8월 7일에는 <호프 스프링>, 8월 17일에는 <익스팬더블 2> 등이 각각 10대, 여성관객, 남성관객 등 다양한 관객층을 타깃으로 영화 개봉을 준비 중임

○ 전략적 개봉일 수정

- 애초에 2012년 7월로 개봉일을 정했던 <지.아이.조. 2>가 2013년 3월로 개봉을 늦춘 것은 비슷한 규모의 장르물들 사이에서 전투를 치르지 않으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임
- 개봉일을 미루는 전략은 여름 시즌 안에서도 발견되는데, 매트 데이먼이 하차한 <본> 시리즈의 새 주인공 제레미 레너가 출연하는 <본 레거시>는 애초 8월 3일로 개봉일을 잡았으나, 8월 10일로 일주일 연기했음
- 이는 <토탈 리콜> 리메이크의 개봉일과 <본 레거시> 개봉일 사이에 틈을 두어 정면 승부를 피하고 두 영화가 모두 흥행할 수 있도록 여유를 마련하려는 전략임
- 동시에, 7월 27일부터 시작되는 런던올림픽으로 극장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음
-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극장에서 올림픽 중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극장패스를 판매하는 극장체인도 생겨 영화 상영 스크린수와 영화상영 수입이 줄어듦 전망임

4. 정리 및 시사점

■ 2012년 상반기 박스오피스 트렌드 정리

○ 2012년 상반기 양적 성장 달성

- 이는 한편의 블록버스터가 독식하는 편중된 점유율이 아닌 고른 성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
- <형거게임: 판엠의 불꽃>, <어벤져스> 등 각 사분기별로 흥행에 크게 성공한 영화가 한 편씩 있고, 그 밖의 영화들은 다양한 관객층을 타깃으로 흥행했음
- 미국시장에서 주춤한 경우라도, 스타파워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추가수입을 거둔 영화들도 많음
- 하지만 <배틀쉽>, <아브라함 링컨: 뱀파이어 헌터> 등은 투입된 제작비에 비해 흥행성적은 좋지 않았음
- 또, <록 오브 에이지스>, <다크 새도우> 등 톰 크루즈, 조니 뎀 등의 원톱 캐스팅 시스템이 관객의 구미를 당기기에 역부족이라는 사례도 남았음
- 특히, <어벤져스>처럼 여러 영화의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종류의 영화가 상영된 시즌에는 더욱 그러함

○ 인디영화(Specialty Films)가 성장 중

- 특히, 이 부분에서 비영어권 영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에 20%로 성장해 한국영화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전망됨

○ 2012년 하반기 사상 최대의 여름 블록버스터 시즌으로 기대

- 이는 <다크나이트 라이즈>, <본 레거시>, <토탈 리콜> 등 블록버스터 3편에 거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
- 하반기 전망을 내놓기에는 이른 것처럼 보이나, 적어도 삼사분기는 올 상반기를 웃도는 흥행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